

재귀대명사의 인식자 결속 (Logophoric Binding)에 관한 연구

박 회 문

I. 서 론

종래의 재귀조용사의 결속구조에 관한 연구는 주로 통사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제한된 의미의 연구방법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 예를 들면 GB 이론에서는 국부결속(Local Binding:LB)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결속조건 A, B, C를 설정하고 있으며, 절외결속(Long-Distance Binding: LDB)되는 재귀사들에 대해서는 조용사의 결속영역을 확장시키거나 또는 LF 이동 등을 통해서 이미 설정된 결속원칙 A에 의한 일관된 설명방법을 계속 고수하려는 입장이다. (Chomsky 1986, Pica 1987, Manzini & Waxler 1987, Huang & Tang 1989). 이에 비해 HPSG에서는 국부결속(LB)되는 조용사들은 사격성위계(Obliqueness Hierarchy)에 기초한 통사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박회문(1992)참조), 절외결속(LDB)되는 재귀사들에 대해서는 관점제약(Point of View Constraint)에 의존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Pollard and Sag (1987)에 따르면 “관점(POV)이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을 지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화용이론들과 구별이 될만한 별도의 독자적인 준거를 제안하지 않겠다”고 기술하면서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P. Sells(1987)의 담화분석이론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HPSG가 채택하고 있는 관점제약의 이론적 배경을 이루는 인지전달성(logophoricity)을 자세히 토론해봄으로써 재귀사에 관련된 HPSG의 이론적인 틀을 보완하고 인지전달성(logophoricity) 뿐만 아니라 주제성(topichood)에 의한 설명방법도 아울러 제안하게 될것 이다. 이외에도 CONTEXT의 자질체계에 부분적인 수정을 가함으로써 화용적 결속구조 까지도 HPSG의 이론적인 틀 속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박회문 1992) Chapter 4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자료를 보충 정리한 것이다.

1. HPSG의 ‘관점(POV)’은 Kuno(1987)의 ‘감정이입(empathy)’과 유사한 개념이다. Kuno는 이를 ‘camera angle’에 비유하여 주로 사물을 바라보는 위치(physical location)나 또는 정신상태(mental state)를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취급하였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HPSG의 ‘관점’은 SELF와 PIVOT의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ells(1987)의 ‘인지전달성(logophoricity)’ 개념은 이 ‘관점’을 source, self, pivot 등으로 더욱 세분화시킨 것이며, 여기서 pivot은 순전히 위치(location)에만 한정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II. 본 론

2. 1. 관점제약(Point of View Constraint)

영어의 소유격 상호대명사(possessive reciprocals)와 그림명사 조용사(picture noun anaphors)들은 결속원칙 A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 분포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조용사류들의 결속관계는 '관점(point of view)'이라는 화용적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Pollard and Sag(1989)에서는 "관점이란 화자(speaker)가 담화참여자나 또는 담화에 표현된 지시체의 입장이나 관점에 서서 담화에 참여하고 기술하는 태도"를 일컫는다고 정의하였다. Kuno(1987)는 이를 '감정이입(empathy)'이라고 불렀으며,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통해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 (1) a. John hit Bill.
 b. John hit his brother.
 c. Bill's brother hit him.
 d. Bill was hit by John.
 e. Bill was hit by his brother.

(1a)에서는 화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1b)는 John의 관점에서 기술된 문장이다. 이에 비해 (1c-e)는 모두 Bill의 관점에서 기술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처럼 동일 문장 내에서 관점이 서로 충돌(conflict)하게 되면 비문이 초래된다.

- (2) *Bill's sister_i hit her_j brother.

(2)에서는 Bill의 관점과 Bill's sister의 관점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비문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다. Pollard and Sag(1989a)에 따르면, 관점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림명사 조용사와 소유격 상호대명사의 해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장한다. 첫째로, 전체문맥을 통하여 하나의 관점만이 일관성있게 유지된다면, 이 경우의 조용사들은 그 관점을 제기하는 개체와 결속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다음 (3)에서처럼 John이라는 어느 개체의 관점이 전체문맥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이 때의 그림명사 조용사는 오직 John만을 선행사로 취한다는 설명이다.

- (3) John_i was going to get even with Mary. That picture of himself_i in the paper would really annoy her, as would the other stunts he had planned.

그러나 다음 (4)에서처럼, Mary의 관점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명사 조용사인 himself가 John을 선행사로 취하게 되면 매우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린다.

- (4) ?*Mary was quite taken aback by the publicity John_i was receiving.
That picture of himself_i in the paper had really annoyed her, and
there was not much she could do about it.

(4)에서는 John 대신에 Mary의 관점이 전체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John에 대한 지시체는 다음 (5)에서처럼 인칭대명사인 'him'으로 고쳐져야 정문이다.

- (5) Mary was quite taken aback by the publicity John_i was receiving.
That picture of him_i in the paper had really annoyed her, and there
was not much she could do about it.

이상에서처럼 조용사들은 주어진 담화맥락에서 관점을 제기하는 개체를 선행사로 취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담화맥락을 통하여 하나의 관점만이 계속 유지된다면 문장경계를 넘어서도 결속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둘째로, 담화분석이론에서 각 문장이나 절은 각기 하나의 관점만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절은 관점이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조용사를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 (6) ?*John_i told Mary_j that the picture of himself_i in Rome proved that picture
of herself_j in Naples was a fake.

(6)의 문장에서는 John의 관점이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herself가 주절의 목적어인 Mary와 동일지표화되어 비문으로 취급된다.

HPSG의 관점계약(Point of View Constraint)이론은 지금까지의 토론에서 알 수 있듯이 담화체에서의 조용사 결속구조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설명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Kuno(1987)가 제시한 다음의 예문에서는 동일한 문장내에 두개의 관점이 병존하면서도 정문이 된다.

- (7) a. John and his brother talked to Mary about her sister.
b. John talked to his wife about her sister.

Kuno의 설명에 따르면 (7a)에서 'John and his brother'는 John의 관점에서, 그리고

'Mary about her sister'는 Mary의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들 사이의 감정이입관계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7b)에서는 John과 his wife의 관점이 동일 문장내에 병존하면서도 정문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서로의 관점이 논리적 충돌(logical conflict)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Kuno는 (7b)에서 John과 his wife 사이의 감정이입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대상 공감위계 (Descriptor Empathy Hierarchy)를 설정하고 있다.²⁾

(8) 기술대상 공감위계(Descriptor Empathy Hierarchy):

어떤 기술대상인 x 와, 그리고 이것과 의존관계에 있는 또 다른 기술대상인 $f(x)$ 가 있을 경우, 화자(speaker)는 $f(x)$ 보다는 x 와 더 많은 감정이입 관계를 형성한다.

위의 '기술대상 공감위계'에 근거하여 (7b)에서 각 논항들의 공감위계(Empathy Hierarchy)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9) a. $E(\text{John}) > E(\text{his wife})$
 b. $E(\text{his wife}) > E(\text{her sister})$

(9a)에서는 his wife가 John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John의 공감위계가 높으며, (9b)에서는 his wife가 위계가 높다. Kuno(1987)는 (9a,b)의 관계를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하여 공감대 이동(Transitivity of Empathy Relationship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점의 충돌을 금지시키는 '공감초점 충돌 금지조건(Ban on Conflicting Empathy Relationships)'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0) 공감대의 이동(Transitivity of Empathy Relationships):

공감대는 이동성을 지닌다.(Empathy relationships are transitive)

(11) 공감초점 충돌 금지조건(Ban on Conflicting Empathy Foci):

하나의 문장은 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공감대 관계를 포함할 수 없다.

2. Kuno(1976:417-444)에서는 화자가 문중의 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정도를 감정이입(empathy)이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은 공감위계(Empathy Hierarchy)를 설정하고 있다.

- a. Surface Structure Empathy Hierarchy:
 Subject > Object > by-Passive Agent
 b. Speech-Act Participant Empathy Hierarchy
 Speaker > Hearer > 3rd Person
 c. Topic Empathy Hierarchy
 Discourse Topic > Discourse-Nonanaphoric
 d. Human Hierarchy
 Human > Animate Nonhuman > Thing

(A single sentence cannot contain logical conflicts in empathy relationships.)

(10)의 '공감대 이동'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9a,b)를 하나로 통합시키면 다음과 같다.

(12) E(John) > E(his wife) > E(her sister)

(12)의 통합된 공감위계는 (11)의 '공감초점 충돌 금지조건'과 함께 (7b)의 문법성을 올바르게 설명해 주고있다.

2.2. 인지전달성(Logophoricity)

원래 '인지전달성'이라는 용어는 Hagege(1974)와 Clements(1975)등이 Africa언어인 Ewe와 Gokana를 연구하면서 신조한 어휘로서, 각 언어마다 이런 류의 인식자 대명사(logophoric pronoun)들은 다른 대명사류들과는 다른 독특한 분포를 지닌다고 보고하고 있다. Clements(1975)에 따르면 인식자 대명사의 선행사는 대략 "현재 이야기 되고있는 대화, 사상, 감정, 의식상태 등의 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자 대명사들은 일반적으로 술부의 문장논항(sentential argument)속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경향이 있다고 한다. 좀 더 최근에 들어와 '인지전달성' 개념은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아이슬란드어 등에서 발견되는 절외결속(LDB) 재귀조용사들의 통사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Bremen(1984), Kameyama(1984), Kurfo(1986), Maling(1984) 등은 인지전달성과 관련된 선행사에 대해서는 [+log]라는 자질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장석진(1986)에서도 이와 비슷한 분석이 시도되었다.³⁾

'인지전달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일원화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듯하다. 다만 인지전달성에는 다음과 같은 원초적 개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즉, 근원(source), 자의식(self), 그리고 추축(pivot)등이 그것이며, 이러한 인지전달성의 하위구성요소들이 Sells(1987)가 주장하는 담화분석 이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3. 장석진(1986)에서는 '자기'의 선행사가 통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 기능구조에 [SUBJ], [OBJ](2) 등과 같은 문법기능과 함께 [LOG]를 명시함으로써 재귀사의 결속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예문에서 '미아'를 선행사로 취하는 것은 미아의 인지전달성 때문으로 설명하고있다.

철수[SUBJ]_i가 자기_i를 미워하는 것이 미아[LOG]_j를 슬프게 했다.

이 제안은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LOG]를 더욱 세분화시켜 [source], [self], [pivot]으로 명기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아의 결속 관계를 [LOG]의 하위개념인 [self]로 규명한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Sells의 정의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3) 근원(source): 담화에서 의도성을 지닌 행위자(intentional agent)
 자의식(self): 명제의 내용이 기술하고 있는 정신상태(mental state)나
 또는 태도(attitude)의 소유자
 추축(pivot): 명제의 내용이 평가되고 있는 시공(time-space)의 위치
 (location)와 관련된 개체.

그러면 이러한 인지전달성의 원초적 개념들이 영어의 인식자결속(logophoric binding) 관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 (14) a. Mary heard from John_i that there was a picture of himself_i
 in the post office.
 b. *Mary said about John_i that there was a picture of himself_i
 in the post office.
- (15) a. It relieved Mary_i that, as for herself_i, she didn't have to move.
 b. John expected Mary_i that, as for herself_i, she would do it.
- (16) a. I shouldn't have gone up to him and told him that I was tired of
 studying with him.
 b. *I shouldn't have come up to him and told him that I was tired of
 studying with him.

(14a)에서는 '선행사인 'John'이 종속절의 명제를 전달하는 source이기 때문에 재귀 대명사의 인식자 결속(logophoric binding)이 가능한 반면에, (14b)에서의 'John'은 source가 아니기 때문에 선행사가 될 수 없어 비문으로 처리된다. (15b)에서는 보문 절에서 기술되고 있는 명제에 대한 'Mary'의 정신상태(즉, self)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식자 결속이 가능한 반면에, (15b)에서는 기술된 명제에 대한 John의 입장을 기술하기 때문에 비문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16b)에서는 'come'이라는 동사의 본유적인 속성이 화자와의 감정이입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I'가 pivot을 이루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him'이 pivot을 이루기 때문에 비문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인지전달성의 하위개념들은 국부결속(local binding) 영역을 벗어나는 선행사와의 조응관계를 규명해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을 증명해 보였다. 다음 절에서는 인식자 결속의 하위개념들인 [source], [self], [pivot]등을 해당 지시체에 직접 명기해 줌으로써 '관점제약'에 의한 결속구조를 밝혀 보기로 한다.

이러한 표기방식은 기존의 [+log] 표기방식보다는 더욱 정교한 것으로서 절외결속

(LDB)되는 조용구조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HPSG의 '관점결속' 관계를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2.3. 인지전달성(Logophoricity)에 의한 절외결속(LDB)

Zribi-Hertz(1989)에 따르면, 영어의 재귀조용사는 관점의 선택에 따라 미세한 의미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우선 다음의 예들은 조용사를 포함하는 어구가 별도의 수식어구를 이루기 때문에 소위 Chomsky의 성분통제조건(C-command Condition)을 위배하면서도 결속이 가능한 경우이다.⁴⁾

- (17) a. The women_i were standing in the background, with the children behind them_i.
 b. The women_i were standing in the background, with the children behind themselves_i.

(17a,b)의 의미상의 차이에 관한 Cantrall(1973)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즉 카메라에 등을 돌리고 서있는 여자들의 사진이 있다고 가정할 때, (17a)와 (17b)의 내용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17b)에 나타난 아이들은 여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자신들의 등 뒤에--다시말해서, 사진의 전면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17a)의 사진에 나타난 아이들은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여자들의 뒤'--즉, 여자들의 앞쪽인 사진의 후면--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Cantrall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즉 3인칭 재귀대명사나 인칭대명사의 선택이 구조적으로 조건지워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귀대명사의 선택은 항상 '내면적'인 관점, 즉 화자(speaker)에 상대되는 담화상의 '주인공의 관점'과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제약은 또한 Kuno(1972, 1987)와 Kuno & Kaburaki(1987)의 대명사 분석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Kuno의 주장에 따르면 영어의 재귀대명사가 사용된 경우는 이 재귀대명사의 지시체--즉, 선행사--가 감정이입의 초점(focus of empathy)을 이룬다는 것이다. Kuno(1982)가 제시한 다음의 문장들은 모두 인식자 문맥을 포함하고 있다.

- (18) a. John_i told Mary that as for himself_i, he wouldn't have to move.
 [source]

4. 성분통제(C-Command)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X를 지배하는 최초의 가지마디(branching node)가 Y를 지배하고 X와 Y는 서로 직접지배하지 않을 때, X가 Y를 성분통제한다.

b. *John_i heard from Mary that as for himself_i, he wouldn't have
[source]
to move.

(19) a. It worried Mary_i that, as for herself_i, she hadn't been invited.
[self]

b. *John said about Mary_i that, as for herself_i, she wouldn't be invited.
[self]

(20) a. John_i got from Mary a portrait of himself_i by his sister.
[pivot]

b. *John gave Mary_i a portrait of herself_i by his brother.
[pivot]

(18a)에서는 어떤 화자가 John의 관점에서 종속절 내의 명제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명제의 source는 John이 되며 종속절 내의 himself와 인식자결속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서 (18b)에서는 명제의 source가 John이 아니라 Mary이다. 때문에 John-himself 사이의 조용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어서 비문이 된다. (19a)의 조용관계에서는 주동사인 'worry'가 주인공의 정신상태(mental state)를 나타내는 심리동사이기 때문에 self에 의한 인식자 결속이 가능하다. 즉, 종속절에 기술된 명제의 내용이 Mary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herself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19b)에서는 종속절의 명제가 Mary와 인지전달성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herself와 결속될 수 없어서 비문이 된다. (20a)에서는 himself의 지배범주인 'a portrait of himself' 내에 자신보다 사격성이 작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사적인 설명방법 대신에 pivot에 의한 인식자결속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여기서는 동사인 'go from'의 의미속성에 의해서 주어진 John이 pivot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John과 himself 사이에 인식자결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문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20b)에서는 수혜자(beneficiary)인 Mary는 John을 pivot으로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문맥상의 pivot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Mary와 herself 사이의 결속관계는 비문을 초래하게 된다.

(18)-(20)에서의 각 비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Kuno는 다음과 같은 의미제약을 설정하고 있다. 즉, 재귀대명사가 절외결속(LDB)되는 경우에는 선행사로 지목되는 개체의 관점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인지전달성(logophoricity)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Zribi-Hertz(1989)의 표현을 빌리면, 절외결속되는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는 담화상의 의식의 주체(Subject of Consciousness)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⁵⁾

5. 'Subject of Consciousness'라는 용어의 자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Zribi-Hertz 1989:317)를 참조할 것.

Chomsky류의 변형생성문법에서도 (18)-(20)에서 (a)-(b)의 대조가 관점제약을 포함하는 의미적 속성과 관련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 듯 하나, 이러한 절외결속(LDB)현상을 구조적속성으로 분류한다는 점이 HPSG와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8)-(20)에서의 비문법성은 구조적 속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담화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21) a. John_i hid [the book behind himself_i].
 [pivot]
 b. John_i hid [the book behind him_j].

(21a, b)의 의미적 차이점에 대해 Kuno의 설명에 따르면, 'John'과 'book'의 위치관계가 (21b)보다는 (21a)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즉, (21b)에서는 pivot을 이루는 John의 양어개를 가로지르는 일직선을 기준으로 뒷쪽 어디엔가에 책을 숨겼다는 뜻임에 비해서, (21a)에서는 'book'이 John에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거나, 혹은 John의 몸에 닿아있는 형상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재귀사는 다른 대명사류들 보다는 감정이입(empathy)의 관계가 쉽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즉, (21a)에서의 John은 '직시의 중심(center of deixis)'으로서 pivot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강조용법의 재귀대명사들이 Chomsky가 설정한 지배범주(governing category)를 벗어나면서 선행사와 결속되는 현상을 보인다.

- (22) a. Slowly, strangely, consciousness changes, and Petworth_i can feel
 [self]
 [the change taking place within himself_i].
 b. But Rupert_j was not unduly worried about [Peter_j's opinion of himself_i].
 [self]

(22a)에서 전치사구인 'within himself' 내에는 himself를 결속할 수 있는 접근가능한 대 주어(accessible SUBJECT)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himself의 통어범주는 'the change'를 head로 하는 NP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 NP에서도 가능한 결속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22b)의 경우는 어떻한가? 여기서는 'Peter's opinion of himself'가 지배범주를 이루기 때문에 himself와 결속 가능한 선행사는 Peter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himself는 모문의 주어인 Rupert와 결속되면서도 정문을 이루고 있다. 이런 종류의 조용관계는 오직 인식자결속(logophoric binding)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22a)에서는 himself와 조용관계를 이루고 있는 Petworth의 내면적인 관점에서 그의 심리상태가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절외결속 될 수 있다. (22b)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심리동사(psychological verb)인 'worry'에 의해서 주어인 Rupert의 정신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self에 의한 인식자결속이 가능하다.

- (23) a. And that was exactly it, he_i thought, he_i really didn't care too much
[source]
[what happened to himself].
b. But, aside from this, she_i was keenly conscious of the way in which
[self]
[such an estrangement would react on herself].

(23a)에서는 주어 he가 명제의 근원을 이루며, 이는 슬어동사 'thought'에 의해서 포착 될 수 있다. 또한 (23b)에서는 명제의 내용이 주어의 심리상태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self에 의한 인식자 결속이 가능해진다.

다음 (24)에서는 비강조적 재귀대명사가 성분통어계약(C-commanding Condition)을 위배하면서도 정문을 이루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관점계약(POV)'에 의해서 설명될 수도 있겠으나 인지전달성의 하위개념인 self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 (24) John's face [turned red/showed disappointment] despite himself.
[self]

(24)에서는 'despite himself'가 부사어구로서 John과의 성분통제 관계에 놓여있지 않으면서도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turned red'나 또는 'showed disappointment'와 같은 슬어들의 속성으로 미루어 보아 주어 John의 내면적인 심리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self에 의한 인식자결속이 가능해진다.

2.4 주제성(Topichood)에 의한 절외결속

박승운(1987)에 따르면 주제는 담화적 개념으로서 문장경계를 벗어나면서도 전체적인 담화맥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⁶⁾ 또한 Halliday(1985)의 주장에 따르면 영어에서는 주어(subject)가 주제(topic)의 속성과 부합하여 문두에

6. 박승운(1986:578)에서는 주제성(topichood)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제는 뒤에 오는 문장의 동사의 논항일 필요가 없다. 다시말해, 주제가 주어와는 달리 뒤에 오는 문장으로 부터 통사적 독립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어(subject)와는 달리 주제(topic)는 뒤에 오는 동사와의 성(gender)과 수(number)의 일치같은 현상도 보여주지 않으며, 재귀대명사화(Reflexivization)와 같은 통사적 현상도 야기시키지 않는다.

오기 때문에 주제를 주어와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며 수동태의 주어가 바로 그러한 구체적인 예라고 주장한다.

영어에서의 이러한 주제성이 조용사의 절외결속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음의 예들은 Zribi-Hertz(1989:707)에서 인용된 것들이다.

- (25) *Clarai[topic] did not know whether to regret or to rejoice at their arrival; she_i did not get on well with either of them (...), and yet on the other hand their presence did not intensify the difficulty of an evening, but somehow dissipated and confused it, so that at least its burden did not rest upon herself_i alone.*
- (26) *There were hours when Mrs. Wix[topic]_i sighingly testified to the scruples she surmounted (...). If the child_j couldn't be worse it was a comfort even to herself_i that she_j was bad.*
- (27) *Everything was full of the stir, the potency, the fecundity of spring. Suddenly he said aloud: "Possessiveness is the devil." Maggie[topic]_i looked at him. Did he mean herself_i--herself_i and the baby?*

(25)-(27)에서와 같은 담화체의 문장에서는 선행사와 재귀사들 사이의 결속이 문장 경계를 뛰어넘으면서도 조용관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경우의 예들이다. 이러한 종류의 결속관계를 순수한 통사적인 접근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25)-(27)에서의 결속관계를 HPSG의 '관점계약'에 의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각문장에서 주인공들의 관점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기 때문에 절외결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된다. 그러나 위의 문장들에서 파악할 수 있는 또다른 특징은 담화의 주인공들인 'Clara, Mrs. Wix, Maggie' 등이 전후문맥으로 보아 현저한 담화주제(salient discourse topic)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25)-(27)과 같은 담화체 문장에서의 조용사 결속현상에 대해 '관점' 보다는 '주제성(topichood)'에 의한 설명방법이 더 자연스럽다는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이미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문장이나 담화맥락 내에 두개의 관점이 병존하면서도 정문이 되는 경우를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한다.

- (28) *Mary_i spoke to the school doctor about her_i ever-worsening depression. He gave her_i some excellent advice; that she_i might consider a different major was perhaps his most important suggestion. He then noted that it was not uncommon for students like her_i/herself_i to try several fields before making a decision. (Kuno(1987:125))*

위의 담화체 문장에서는 Mary와 doctor의 관점이 서로 교차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줄의 'herself'가 주어인 Mary와 절외결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Kuno(1987)는 공감대 이동규칙(Transitivity of Empathy Relationships)과 공감초점 충돌 금지조건(Ban on Conflicting Empathy Foci)을 이용하여 (28)과 같은 유형의 절외결속관계를 설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Kuno의 설명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의 조용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 (29) *Mary_i criticized Bill_j to his_j face in [her_j long and involved story about himself_j].

Kuno의 설명대로라면 (29)에서는 Mary의 관점에서 Bill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Bill-himself사이의 절외결속(LDB)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비문으로 판명된다. 물론 여기에 '공감초점 충돌금지조건'을 적용시켜 (29)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Kuno는 이 조건의 적용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8)에서는 관점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문이 되며, (29)에서는 관점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28)과 (29)의 결속현상에 대해서는 주제성(topichood)에 의한 설명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28)에서는 Mary가 담화주제를 이루기 때문에 절외결속이 가능하며, (29)에서는 Bill이 담화주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himself와의 절외결속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주제(topic)'의 속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인 듯하다. 박승운(1987)에서는 담화주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주제는 뒤에 따라나오는 문장의 동사와는 관계없이 주로 이전담화(prior discourse)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담화주제가 지닌 또 다른 속성은 그 기능적 지배범위가 담화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주어(subject) 등과 같은 격(case) 개념은 동사의 인력에 끌려 문장의 경계를 벗어날 수 없으나, 주제는 문장의 경계를 벗어나 담화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문맥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록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담화주제(discourse topic)는 더 많은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포함하면서도 전체 담화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28)과 (29)에서와 같은 조용관계는 주제성에 입각한 설명방법이 더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30)-(32)에서의 절외결속이 가능한 것은 각기 담화상의 주인공인 'he Arthus, Joice' 등이 문맥상 현저한 주제를 이루기 때문이다.

- (30) Not till she had, with difficulty, succeeded in explaining to him_i[topic] that she had some nothing to justify sich results and that his_j wife was equally incredulous of her innocence and suspected himself_j, the pastor,

to be the cause of her distress, did his face light up with understanding.

(31) Arthur_i[topic]'s fulsomeness seemed to embarrass the Baron as much as it did himself_i.

(32) Joice_i[topic] is just holding herself together(....). Her_i defences are well inside herself_i, not where mine are, outside in clothes, hair, etc..

(30)-(32)에서도 각기 he, Arthur, Joice가 현저한 담화주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문장들을 HPSG의 관점계약(POV Constraint)에 의거하여 설명해보면 이 글의 작가가 각 문장의 주인공들인 he, Arthur, Joice의 관점에서 담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절외결속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topic에 의한 설명 방법이 가능하다. 즉, (30)와 (31)에서는 주인공인 he와 Arthur의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들이 담화상의 topic을 이루고 있다. 특히, (32)에서는 이 글의 작가가 표면적으로는 Joyce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Joice를 topic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작가의 '내면적인 관점'이 지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구조에서의 조용사 결속관계는 HPSH의 관점계약이 유용한 설명방법이기는 하나, 여러개의 관점이 포함된 담화맥락에서는 앞서 토론한 바와 같이 주제성(topichood)을 이용한 분석방법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2.5 의미역(Thematic Roles)에 의한 절외결속

재귀조용사의 절외결속 현상에 대해서는 인지전달성이나 주제성에 의한 설명방법 이외에 의미역(thematic roles)에 의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은 분리 형용사(split antecedent)의 구조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다음 (33)에서의 재귀대명사들은 각기 담화맥락 내에 분리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33a)에서는 어떤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기 때문에 ourselves는 'I(author)'와 'you(reader)'를 선행사로 갖게 됨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리고 (33b)에서의 ourselves는 'I(Palmer)'와 'you(Martin)'을 선행사로 갖게된다.

- (33) a. Similar odorous substance, called pheromones, are used as mating stimuli by many animals, even by species as highly evolved as ourselves.
- b. 'You will not be damaged,' said Palmeri[agent](...) 'This is a big thing, Martin[hearer],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_i. If it were not so, Antinia and I might have played things differently (.....).'

(33a)에서는 어떤 과학적인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기 때문에 재귀 조용사인 ourselves는 음성적으로 표출되지 않는 'I(author)'와 'you(readers)'를 내면적인 선행사로 지니게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조용사 결속구조는 본 연구에서는 논의로 하겠다. (33b)에서의 조용사 결속구조를 인지전달성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우선 첫번째 선행사인 Palmer는 명제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source에 의한 인식자결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두번째 선행사인 Martin은 source, self, pivot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관점제약'에 의한 설명방법은 어떻한가? 전후맥락으로 보아 Palmer의 관점이 지배하고 있다는 설명은 가능하나 Martin의 관점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관점제약'에 의한 설명방법도 설득력을 잃게된다. 또한 (33b)에서는 Palmer와 Martin이 동시에 담화상의 현저한 주제(topic)를 이루지도 못한다. 따라서 분리선행사(split antecedent)의 경우에는 Kuno(1976)와 Wilkins(1988) 등이 제안한 화용적 이론을 도입하여 조용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즉, (33b)에서의 Palmer는 담화의 행위자(agent)로서 담화 속에 재귀조용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Martin은 청자(hearer)이다. Givon(1976)의 주장에 의하면 의미상으로는 행위자(agent)가 주제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33b)에서는 담화의 행위자인 Palmer가 주제성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두번째 분리선행사인 Martin은 위의 담화맥락에서 청자의 의미역(thematic role)을 갖는다. Kuno(1976)의 화행참여 공감위계(Speech-Act Participant Empathy Hierarchy)에 의하면 청자도 화자(speaker)의 다음으로 위계가 높음을 보여준다.

(34) 화행참여 공감위계(Speech-Act Participant Empathy Hierarchy)

Speaker > Hearer > 3rd Person >

따라서 Palmer와 Martin은 이들이 지닌 주제성 때문에 비록 분리되기는 했지만 ourselves와의 절외결속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 (35)의 예문들은 분리선행사가 동일 절(clause) 내에 위치한 경우이다.

- (35) a. Mary_i[agent] eventually convinced her sister Susan_j[experiencer] that John had better pay visits to everybody except themselves_{i,j}.
 b. I_i[agent] bet you_j[beneficiary] ten francs that John will write to both the landlady and ourselves_{i,j}.
 c. Mary_i[agent] reminded Susan_j[experiencer] about the landlord and themselves_{i,j}.

(35)의 경우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분리되기 때문에 '관점제약'을 적용시키기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35a)에서는 Mary의 관점이, 그리고 (35b)에서는

주어인 I의 관점이, 그리고 (35c)에서는 Mary의 시각이 유지된다는 설명은 가능할 수 있으나 두번째 분리선행사들인 'Her sister Susan, you, Susan' 등의 관점은 전혀 관여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결속관계에 '인지전달성' 개념을 적용시키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35a)에서의 Mary는 종속절 내의 명제를 전달하는 source로서 선행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경험자(experiencer)인 'her sister Susan'은 source, self, pivot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설명이 (35b,c)에서도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종류의 결속관계는 Kuno(1987)의 의미격위계(Semantic Case Hierarchy) 이론이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여겨진다.

(36) 의미격 위계(Semantic Case Hierarchy):

Agent > Experiencer/Beneficiary > Goal > Other Cases

위의 의미격 위계이론은 조동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는 선호도의 위계를 나타내고 있다. (36)의 위계표에 의하면 경험자(experiencer)와 수혜자(beneficiary)는 문장 내에서 격(case)을 지니는 의미요소들 중에서 행위자(agent) 다음으로 재귀사들과 결속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이들의 주제성이 높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5a,b,c)의 두번째 분리선행사들은 각기의 재귀대명사들과 결속 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Fillmore(1968)의 격문법(Case Grammar) 이론에 의거한 화용적인 설명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우선 다음 예문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 (37) a. John[agent] broke the bicycle with stone.
 b. The stone[instrumental] broke the bicycle.
 c. The bicycle[experiencer] broke.

(37a)는 행위자(agent)를 주어로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문장이다. 그러나 (37b)에서 처럼 agent가 없는 문장에서는 도구격(instrumental)이 주어가 되며, (37c)에서 처럼 agent와 instrumental이 없는 경우에는 경험주(experiencer)가 주어의 자리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속환(1985)에서는 "주어가 선행사로서 자격을 잃을 때, 경험주나 또는 수혜자(beneficiary)가 재귀사의 선행사가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경험주나 수혜자 등도 주어성(subjectivity)에 있어서 높은 위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제성(topic-hood)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35a,b,c)에서의 두번째 분리 선행사들은 경험주와 수혜자로서 비록 주어는 아니지만 높은 위계의 주제성을 지니기 때문에 각 문장 내의 재귀조동사들과 절외결속(LDB)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6 인식자결속의 자질구조 체계

현재의 HPSG 이론에서는 국부결속되는 재귀사들의 분포에 대해서는 사격결속(Obliviousness Binding)에 의거하여 그 조용관계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 그리고 절외결속(LDB)되는 재귀사의 조용관계에 대해서는 '관점제약'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이 어떻게 HPSG의 자질구조(feature structure) 체계 속에 수용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실험적인 연구로서 절외결속되는 재귀사의 조용관계를 어떻게 HPSG의 자질구조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Pollard and Sag(1989)에서는 무제한 의존구문(UDC)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filler와 gap 사이의 자질체계에 약간의 변화를 줌으로써 영어자체의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다음의 예문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38) It was herself_i that Mary_i thought John_j liked (t_i) best.

위 문장의 문법성은 Pollard and Sag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38)의 결속구조에서는 REF-TYPE이라는 자질이 index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index와는 별개인 의미내용의 일부로서 규명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filler의 의미내용은 여전히 흔적 t의 의미내용과 통합(unification)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통합되는 요소에는 REF-TYPE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속조건 A는 (38)의 예문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게 되며, 조용사들은 오로지 '관점제약(Point of View Constraint)'에만 순응하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관점제약'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인지전달성(logophoricity) 개념을 도입하여 절외결속 현상을 HPSG의 자질구조 내에 수용해보기로 한다. 인지전달성의 하위개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질(feature)과 자질값(feature value)을 부여하기로 한다.

(39)	feature	feature value
a. source:	[log]	1
b. self:	[log]	2
c. pivot:	[log]	3

(39a)의 자질표시 [log 1]은 인식자(logophor)가 source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이미 앞절에거 논의한 바와 같이 source는 담화의 발화자나 또는 의도를 지닌 행위자(intentional agent)를 지칭하며, 이 경우 주절의 동사는 주로 '말하다, 생각하다' 등으로 이루어진다. (39b)의 [log 2]는 인식자가 self인 경우에 부여되며, 주로 심리술어(psychological verbs)를 포함하는 문맥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39c)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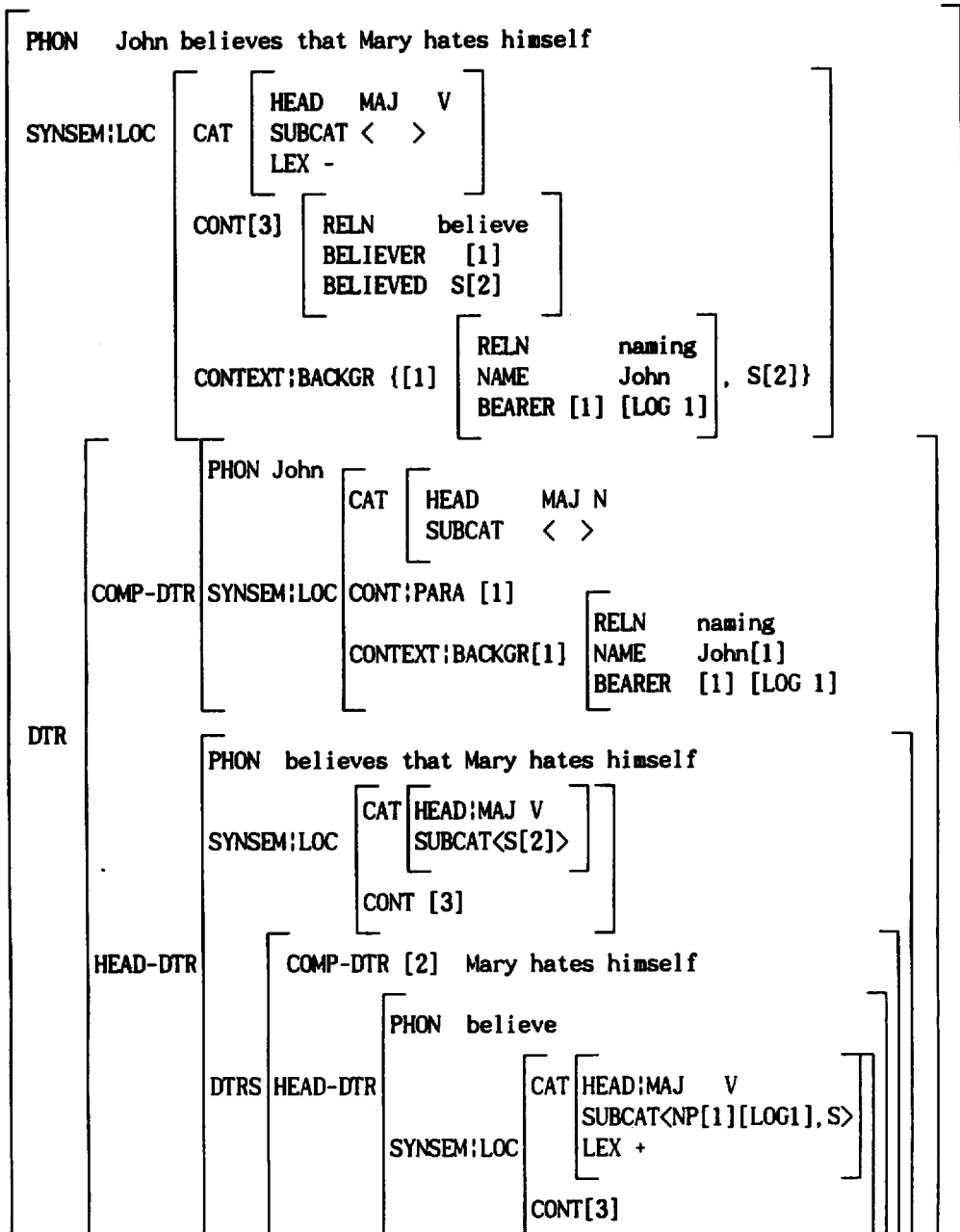
[log 3]은 주로 평가의 위치(location)와 관련된 인식자 문맥에서 도입된다. 이러한 자질표시를 이용하여 아래의 인식자 문맥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41)은 (40)의 하위범주를 각기 표기한 것이다.

- (40) a. Kim_i saw a picture of himself_i.
 b. John_i believes that Mary_j hates himself_i [more than anyone in the world].
- (41) a. saw: SUBCAT<NP[log 1]_i, NP<Det, PP[of, ana]_i>>
 b. believe: SUBCAT<NP[log 1]_i, VP[+SUBJ]<SUBCAT<NP_i, P[ana]_i>>>

위 문장에서의 조응관계를 새로운 자질표시 방식을 도입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0a)에서 조응사 himself는 극부적으로 결속되지 않기 때문에 HPSG 결속원칙 A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점제약에 의한 화용적 설명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log] 표기에 의한 분석방법은 (40a)의 결속구조를 형식화시켜 일관성있게 설명해 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즉 (41a)의 하위항목 중에서 ana는 주어 NP_i와 인식자결속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log 1]이라는 자질표시에 의해서 포착될 수 있다. 여기서 주어 Kim은 의도를 지닌 행위자로서 sourc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log]의 자질가는 [1]이 된다. (41b)에서도 이와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조응사 ana는 극부결속영역 내에 결속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주절의 주어인 John과 절외결속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주절의 주어인 John은 종속절에 기술된 명제의 source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log 1]이라는 자질표시가 주워진다. 결국 하위범주항목 내에 [log]가 나타나면 이는 인지전달성에 의한 절외결속관계를 나타내며, 또한 이 경우의 조응관계는 극부결속 영역을 벗어나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러한 자질표시 체계를 이용하여 절외결속되는 재귀대명사들의 결속관계를 HPSG의 feature structure 속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기로 한다. 우선 (40b)의 자질구조를 기호(sign)로 약식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의 편의상 부사어구인 'more than anyone in the world'는 생략하기로 한다.

(42)



(42)의 속성가 행렬(AVM)에서 내포절인 'Mary hates himself'의 자질구조는 편의상 생략하여 표기한 것이다. 위의 자질구조에서 내포절은 주절의 동사인 believe의

하위범주는항이 된다. 그리고 내포절에서 술부의 머리딸(head daughter)인 'hate'의 SUBCAT을 약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43) hate: SUBCAT<NP[4]_i, NP[1][ana]_i>

(43)의 하위범주 표시에서 재귀조용사인 NP[ana]_i는 그 결속영역 내에서 결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사격성이 작은 명사구인 NP_j가 존재하기는 하나 index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42)의 AVM에서 주절의 주어인 John과 내포절의 목적어인 himself 사이의 절의 결속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제안대로 CONTEXT의 자질구조에 변화를 줌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즉, John의 자질구조 중에서 BACKGR의 하위속성인 BEARER의 값에 [log]라는 자질을 부여함으로써 John이 절의결속 구조에서의 선행 사임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42)의 AVM에서 [log]자질은 M|LOC|CONTEXT의 하위속성인 BACKGR의 속성가에 나타날 뿐 만 아니라 모문술어(matrix predicate)의 머리딸(head daughter)인 believe의 SUBCAT는항에도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log]의 값은 SOURCE가 된다. 왜냐하면 주동사인 believe의 의미속성으로 보아 John은 의도성을 지닌 행위자(intentional agent)이기 때문이다. 결국 주동사인 believe의 하위범주는 (43)의 하위범주 항목과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44) believe: SUBCAT<NP[1][log]_i, VP[+SUBJ]<NP[4]_i, NP[1][ana]_i>>

위의 논항표시 중에서 VP[+SUBJ]는 GPSG의 표기방식을 따른 것으로 내포절을 의미하게 된다. (44)의 하위범주 표시에서 [log]에 의한 절의결속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즉, VP[+SUBJ]의 하위범주 논항인 NP[1][ana]_i는 자신의 결속영역 내에 동일지표를 지닌 사격결속자(o-binder)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통사적으로는 비문이 된다. 그러나 결속영역의 밖에 [log] 자질을 지닌 NP가 존재하며, 또한 PARA의 값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절의결속이 이루어져서 정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40b)의 결속관계는 통사적으로는 비문이 되나 화용적인 측면에서는 정문이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종류의 조용관계를 HPSG의 담화결속 체계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화용적 결속원칙이 새롭게 설정될 요소가 있다.

(45) 인식자 결속원칙(Logophoric Binding Principle):

재귀조용사들이, 만일 주동사(matrix verb)의 하위범주 논항 중에서 매개변항의 값이 서로 동일하고 또한 [log] 자질을 지닌 명사구가 있으면, 이것과 절의결속(LDB)될 수 있다.

(45)의 결속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위범주 항목 중의 어떤 NP에 일단 [log] 자질이 구현되면 HPSG의 결속원칙 A는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HPSG에서는 규칙적용의 순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속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통사규칙과 화용규칙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양자 중에서 어느 한쪽의 규칙에 순용하기만 하면 정문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양자 모두에 순용하지 않으면 비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 된다.

[log] 자질은 HPSG의 결속원칙들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통사자질(syntactic feature)로는 볼 수 없다. 또한 [log]에 의한 분석방법은 전적으로 어휘론에만 의존하지도 않는다. 물론 (40b)에서의 결속관계는 주동사인 'believe'의 의미특성에 의해서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종속절에 기술된 명제의 내용을 '믿는' 주체가 John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속절의 논항들은 John의 통제를 받는 영향권에 포함되어 himself와 절외결속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방법은 문장경계를 벗어나면서도 조용관계를 유지하는 결속구문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화자의 '관점' 이나 또는 '인지전달성'에 의존하여 설명할 수 밖엔 없다. 결론적으로 [log] 자질에 의한 분석은 어휘론적인 속성 뿐만 아니라 화용적인 속성 까지도 고려한 복합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HPSG의 화용적 결속이론인 관점제약(Point of View Constraint)을 이용하여 GB의 결속원칙 A에 순용하지 않는 결속구문들을 분석하였다. Chomsky 류의 변형생성문법에서도 최근에 들어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능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의미적 속성과 관련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 듯하나 근본적으로 이들의 접근방식은 재귀대명사의 결속현상을 통사적인 속성으로 분류한다는 점이 HPSG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HPSG에서는 국부결속되는 재귀대명사에 대해서는 사격결속(Obliqueness Binding)을 통한 통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반면에, 절외결속(LDB)되는 조용사들에 대해서는 관점제약(POV Constraint)이나 또는 인식자결속(logophoric binding)과 같은 화용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후자 쪽을 자세히 토론했다.

HPSG에서 채택하고 있는 관점제약 이론은 담화체 문장에서의 재귀대명사 결속구조를 규명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유용한 설명방법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Pollard and Sag(1989)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관점(POV)이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을 지니기 때문에 HPSG 나름의 독자적인 이론정립보다는 Sells(1987)의 담화분석 이론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점제약의 이론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Sells의 '인지 전달성(logophoricity)'을 근원(source), 자의식(self), 추축(pivot) 등으로 세분하여 절외결속(LDB)되는 재귀대명사들의 결속구조를

화용적인 입장에서 규명하여 보았다. 이러한 인지전 달성의 하위범주들은 GB에서 주장하는 지배범주의 확장이나 또는 LF 이동등을 통하지 않고서도 절외결속되는 재귀대명사들의 결속구조를 무리없이 설명해 낼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기존의 [+log]라는 개념을 [source], [self], [pivot]으로 세분화하여 명기해 줌으로써 결속에 대한 이론적 장치를 풍부히 하였다.

이외에도 문장이 깊어짐에 따라 관점의 초점이 흐려지고 인식자(logophor)의 해석이 난해한 경우에는 주제성(topichood)에 의한 결속구조의 규명방식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외에도 주어성(subjectivity), 의미역(thematic roles) 등에 의거한 화용적 이론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담화체 문장에서의 재귀사의 조용관계를 설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의미역에 의한 설명방식은 분리선행사(split antecedent)의 결속구조를 규명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제안한 절외결속 구조에 대한 조용관계를 HPSG의 자질구조(feature structure) 속에 포함시키려한 시도는 화용적인 결속관계까지도 HPSG의 framework 속에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참 고 문 헌

- 박승윤. 1987. 주어와 주제. 『영문법 개론(II)』, 신아사, 568-583.
 박희문. 1992. 『영어 재귀조용사의 결속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조숙환. 1985. *Issues in the Structure and Acquisition of Korean Anaphor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Bremen, K von. 1984. Anaphors: Reference, Binding and Domains. *Linguistic Analysis* 14. 191-229.
 Cantrall, W. R. 1973. Why I relate own, emphatic reflexives and intensive pronouns, my own self, Corum, Smith-Stark, and Weiser(ed.). *Proceedings of the 9th Regional Meeting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57-67.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Convergence*. A Series Founded, Planned, and Edited by R. N. Anshen.
 Clements, G. N. 1975. The Logophoric Pronoun in Ewe: Its Role in Discourse. *Journal of West African Linguistics*, 10:2.
 Fillmore, C. 1968. The Case for Case, in E. Bach and R. Harms(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Y.: Holt, Rinehard, and Winston. 1-90.
 Givon T. 1976. Topic, Pronoun, and Grammatical Agreement. *Subject and Topic*. C. N. Li eds., Academic Press Inc. 149-188.
 Hagege, C. 1974. Les pronoms logophoriques. *Bulletin de la Societe de Linguistique de Paris* 69, 287-310.

- Halliday, M. A. K.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Baltimore: E. Arnold.
- Huang J. and J. Tang. 1989. The Local Nature of the Long-Distance Reflexive in Chinese. *North Eastern Linguistic Society* 19. 191-206.
- Kameyma, M. 1984. Subjective/Logophoric Bound Anaphor Zibun. *Chicago Linguistic Society* 20. 228-238.
- Kuno, S. 1972. Pronominalization, Reflexivization, and Direct Discourse. *Linguistic Inquiry*. 3:2. 161-195.
- _____. 1976. Subject, Theme, and the Speaker's Empathy: A Reexamination of Relativization Phenomena. Charles N. Li(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417-444.
- _____. 1986. Anaphora in Japanese. in S.-Y. Kuroda, ed., *Papers from the 1st SDF Workshop in Japanese Syntax*.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La Jolla. 11-70.
- _____. 1987. *Functional Syntax: Anaphora, Discourse and Empat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no, S. and E. Kaburaki. 1977. Empathy and Syntax. *Linguistic Inquiry* 8. 627-672.
- Maling, J. 1984. Non-Clause Bound Reflexives in Modern Icelandic. *Linguistics and Philosophy* 7. 179-191.
- Manzini, M. R. & K. Wexler. 1987. Parameters, Binding Theory, and Learnability. *Linguistic Inquiry* 18:3. 413-444.
- Pica, P. 1987. On the Nature of the Reflexivization Cycle. *North Eastern Linguistic Society* 17. 483-499.
- Pollard, C. and I. A. Sag. 1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Vol. I: Fundamentals*.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anford University.
- _____. 1989a. Argument Structure and Binding in English. Paper presented for the Kyung H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nguistic Studies, at the Kwangneung Campus of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_____. 1989b. Anaphors in English and the Scope of Binding Theories. ms., Stanford University.
- Sells, P. 1987. Aspect of Logophoricity. *Linguistic Inquiry* 18:3, 445-479.
- Wilkin, W. 1988. Thematic Structure and Reflexivization. W. Wilkins(ed.). *Syntax and Semantics* 21. San Diego: Academic Press. 191-213.
- Zribi-Hertz, A. 1989. Anaphor Binding and Narrative Point of View: English Reflexive Pronouns in Sentence and Discourse. *Language* 65:4. 307-339.